

# “2028 수능, 국영수 학습 편중 심화...사교육 부채질 할 것”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현행 (~2027학년도 수능)	개편안 (2028학년도 수능~)
국어 공통(독서, 문학)+ 2과목 중 택1	공통(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수학, 수학II)+ 3과목 중 택1	공통(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 영어II)
한국사*	공통(한국사)
사회· 과학	공통(통합사회), 공통(통합과학)
탐구 직업	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1과목
제2 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10과목 중 택1 (추가검토안)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심화수학: 1과목* (미적분II+기하)

\*절대평가 적용 영역    자료: 교육부

## 광주시교육청 “수능 영향력 과도하게 커져...내신등급 완화는 긍정적” “의대 지역인재 70% 이상 의무화...최상위권 위한 서술형 수능” 제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편중 학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내신이 완화되는 반면 수능에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국영수 과목을 집중 학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성적 위주, 줄 세우기 중심의 내신 9등급제를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5등급 상대평가는 내신 등급에 비해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의미도 희석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신 5등급 상대평가(예·체능 제외)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성적 올리기에 유리한 과목(이수자가 많은 과목, 수능 출제 과목)만 선택, 결과적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능 전체 영역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고교 선택과목의 경우 이수자가 많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1등급 비율이 높고 이수자가 적은 과목은 1등급 숫자가 적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성적 기준에 도달 정도를 준거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습적 성장과 발전에 보다 적합하다”며 “다만,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선 희망 학생들만 서술형 수능시험 실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공공의대 및 지역 의사제 등을 전제로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인재 7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현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본다. 국어는 화법과언어·독서와작문·문학을, 수학은 대수·미적분 I·확률과통계를 각각 묶어 공통과목으로 전 수험생이 응시한다. 사탐·과탐은 고1 공통과목인 공통사회·공통과학을 출제 범위로 하며 전 수험생이 응시한다. 기존 수능 체제에서 문과생은 사탐만, 이과생은 과탐만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 경계가 완전히 없어진다. 2025학년도 고1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내신 평가는 1학년년부터 3학년까지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무등산 단풍 이달말 절정 지리산·내장산 29일

무등산 단풍이 이달 말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무등산 단풍 구경의 적기”라고 18일 밝혔다.

단풍 절정은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도 “다음주 주말(28~29일)을 시작으로 지리산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리산은 성삼재를 시작으로 노고단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의 편도 4.7km ‘노고단 코스’가 가을철 인기 구간이다.

산림청의 ‘2023 산립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국립공원별로 내장산(정읍)은 이달 29일, 월출산(영암)은 11월 9일, 두륜산(해남)은 11월 14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화재진압 이렇게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화재진압 교육을 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 광주 3~4거리 횡단보도 X자로 변경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25곳

이보호구역이다.

광주지역 25개 횡단보도가 보행자 위주의 대각선(X자) 횡단보도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광주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라 내달부터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3~4차로에 대각선 모양으로 설치된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 최대 2차례 신호를 기다리고 길을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다방면으로 횡단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오는 11월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개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광산구 5곳, 동구 1곳, 서구 6곳, 남구 3곳, 북구 10곳이다. 25곳 중 20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사지교차로 ▲대각선 횡단거리 30m 이내 ▲차로별 통행량 시간당 800대 이내 ▲보행자 통행량 시간당 500명 이상 ▲비보호 좌회전 운행 중인 교차로 등 설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에는 이를 모두 충족할만한 곳이 거의 없어 설치가 어려웠으나 광주시는 올해 1~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5일 어린이보호구역 5곳의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시행규칙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설되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12월 중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학교서 불 나면 어디로 대피해요?

광주 학교시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4% 그쳐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에 화재 시 피난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이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는 LED점멸을 통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

전남)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902 개교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된 학교는 965개교(8.1%) 뿐이었다.

광주·전남의 교내 설치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는 총 313개교 중 13개교(설치율 4%)에만 설치됐으며, 전남은 821개교 중 54개교(6.6%)에 설치되는 데 그쳤다.

전남은 장치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 150개교에도 설치하지 않았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2018년 이후에 지어진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56.6%)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1.04%)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부족함 없이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신속 학교뿐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도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적극적으로 교체 및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불법 수의계약’ 기대서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기 의원은 “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배·동료 의원과 북구의회 관계자, 북구주민, 지역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 의결에 따라 기 의원은 이날부터 출석이 정지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1·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크는 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자·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자·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기금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